

GOS
3월 셋째주

[순모임 교재]

여론이 아니라 진리로

마가복음 11:27-12:12

❖ 마음 열고, 찬양과 나눔

-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(찬송가 358장, 구 400장)
-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.

예수님의 질문 앞에서, 유대 지도자들은 오직 백성의 눈을 의식한 답을 내놓습니다. 그들은 마치 하늘에서 온 권위가 자신들에게 있는 양 예수님의 권위를 트집 잡았지만, 정작 그들에게 가장 큰 권위는 진리가 아니라 백성의 여론임이 발각되는 순간이었습니다. 이처럼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이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법입니다.

❖ 마음 다해, 말씀과 나눔

1.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에 관해 질문하는 이들에게 답하십시오(11:27-33).
 - 1)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묻습니까(11:27, 28)?
 - 2)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되물으십니까(11:30)?
 - 3)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(11:31, 32)?

나눔1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백성의 눈을 의식한 답을 내놓았습니다.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여론에 더 큰 권위를 두었습니다. 백성의 여론이 이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이야기해봅시다.

나눔2 우리가 진리보다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야기해봅시다. 또 여론이 아닌 진리를 따르기 위해 각오하고 감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.

2.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로 교훈하십니다(12:1-8).
 - 1)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(3-5절)?
 - 2)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(7, 8절)?
 - 3)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(9절)?

나눔3 포도원 주인이 되고 싶었던 농부들이 주인의 종과 아들을 죽였듯이, 자기 삶과 교회의 주인이 되려는 사람은 참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마련입니다. 하나님의 주권을 가로챌 때는 언제인지, 그 순간에 주의 주권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봅시다.

❖ 마음 모아, 함께 기도

삶 |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, 오직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.
공동체 | 우리 주인이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.